

슬기로운 아기로 키워 주는 두뇌자극

감성 태교동화

# 가을날 달님처럼 너를 사랑해

글 김유진 | 그림 레지나  
추천 강남차병원 교수 박희진 · 김지연



한빛리이프

13  
weeks



## 길에서 만난 지혜

우리 아기가 태어나 좀 더 자라면 가족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

여행은 '다른 세상'을 알려 주고 '다른 나'를 느끼게 하거든.

여행을 통해 네가 보다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길

한 번 노력해 보자꾸나.

## 진정한 지혜

토신이란 사람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한 번도 마을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었어. 세상을 직접 돌아보며 지혜를 얻고 싶었던 토신은 어린 아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길을 나섰다.

한참을 지나 토신과 아들은 어느 마을의 장터에 다다랐어. 그런데 두 사람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세상에, 곧 쓰러질 것 같은 저 낙타 좀 봐. 어떻게 두 사람이나 탔을까.”

토신은 부끄러워하며 얼른 마을을 빠져나왔어. 이번에는 아들을 걷게 하고 자신만 낙타를 탔지. 그런데 다음 마을 사람들도 토신과 아들을 보자마자 수군거리는 거야.

“정말 몹쓸 아비로군. 힘센 어른 혼자 낙타를 타고 어린애를 걷게 하다니.”

토신은 또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아들을 낙타에 태우고 다음 마을을 향했어. 세 번째로 도착한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쑥덕거렸어.

“저걸 보게나. 아들은 편히 앉아 가고 아버지는 발이 부르트도록 걷게 하다니.”

토신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곰곰이 생각한 후 아들에게 말했지.

“아들아, 안 되겠다. 둘이 타도 안 되고, 한 사람만 타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니 우리 함께 걸어가자꾸나.”

토신과 아들은 낙타의 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했어. 한참 걷다 보니 두 사람 모두 다리가 아팠지만 꼭 참았지. 드디어 네 번째 마을에 이르렀어.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토신과 아들을 보자마자 배를 잡고 웃었어.



“하하하, 저런 바보들이 있나.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낙타를 타고 갈 생각을 못하다니.”

당황한 토신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이 생각한 끝에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이제 진짜 지혜를 배웠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한 마을에서는 지혜로운 일이 다른 마을에서는 어리석은 일이 되기도 하는구나. 지혜는 밖에서 구하는 게 전부야. 내 생각을 무조건 내팽개치지 말아야 하는 거였어.”

토신과 아들은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어.

엄마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

너를 어떤 방식으로 출산할지, 네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지…….

너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에 집중하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을게.

주위 말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 있게!

21

weeks



## 아늑한 집

숲속 깊은 곳으로 소풍을 가고 싶구나.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서늘한 그늘,

풀향기와 꽃향기,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

그곳에서 너와 뛰놀고 싶어.

나무 아래 예쁜 깔개를 펼치고 아기자기한 도시락을 먹고 싶어.

## 마센카와 곰

마센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숲속에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친구들이 버섯을 한 가득 따 온 것을 본 마센카는 자기가 더 많이 딸 수 있다며 숲속 깊이 들어갔어. 바구니 가득 버섯을 담아 집으로 돌아가려던 마센카는 캄캄해진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 한참 헤매던 중 다행히 오두막을 발견하고는 똑똑, 문을 두드렸어. 그런데 그 오두막은 커다란 갈색 곰의 집이었어. 곰은 마센카를 집 안에 가두고는 으르렁거리며 말했지.

“너는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여기서 나를 위해 집안일을 해야 해. 안 그러면 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마센카는 곰의 집에서 온갖 시중을 들었어.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센카는 어느 날 맛있는 체리파이를 구워 곰에게 보여 주며 말했어.

“갈색 곰아! 부탁이야. 딱 하루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해 줘. 내가 구운 이 맛있는 파이를 꼭 가져다 드리고 싶어.”

곰은 안 된다며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했어. 마센카는 집으로 가는 길에 절대로 체리파이를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곰에게 받아 냈어. 자기가 오두막 지붕 위에 올라가 곰이 파이를 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볼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떠나기 전날 곰이 잠들자 마센카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어 지붕 위에 올려놓고 파이가 담긴 바구니 속으로 들어갔어.

잠에서 깬 곰은 체리 파이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 몇 번이고 바구니를 열어 파이를 먹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 저 멀리 오두막 지붕 위에서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인형이 진짜 마센카인 줄 알았거든.

드디어 할머니 집에 도착한 곰은 문 앞에 바구니를 던져  
놓고 돌아갔어. 바구니 속에 몰래 들어가 있던 마센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나는 언제나

네가 돌아올 수 있는 집으로 있을 거야.

네가 멀리 모험을 떠나도

너를 기다리는 집이 있단 걸 잊지 마.



# 소중한 아기에게 들려주는 감성 태교동화

